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

— 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와 관련하여 —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 번역문¹⁾을 대상으로 ST와 TT의 중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시화, 특히 구조적 명시화²⁾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문에 나타나는 명시화를 인정한다는 것은 번역문을 비번역문과 구별되는 텍스트

*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1) ‘번역문’이란 해당 번역문이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원전(original text)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글을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비번역문(non-translated text)은 글쓴이가 자기 언어로 직접 쓴 글을 가리킨다. 따라서 번역문은 경우에 따라 원전 텍스트의 상대어가 되기도 하고, 비번역문의 상대어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대응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 2) 구조적 명시화란 2.2절에서 언급하는 네 가지 명시화 가운데, 번역 내적 명시화가 언어 구조에 실현된 양상을 가리킨다.

의 집합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이는 나아가서 번역문이 더 이상 원전에 종속되었거나 절대적으로 원전의 간섭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번역문과 비교되는 번역문의 특성이라는 것은 한두 건의 번역물을 대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규모로 축적된 번역 자료³⁾를 대상으로 논의해야만 그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성과를 전제로 한다.

2. 번역 보편소와 구조적 명시화

2.1. 번역 보편소

Mona Baker(1993)가 규범적 관점을 벗어나 기술적 관점에서 번역의 결과와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과 분석 도구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래(안동환 옮김 2008 33), 기술번역학은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꾸준히 자기발전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으며, 그 결과 코퍼스기반 번역학(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번역학 연구 체계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구체적인 자료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언어에 관한 상향식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코퍼스기반 기술번역학은 발전 초기 단계부터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번역문 혹은 번역 텍스트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거둔 최대의 학문적 수확도 번역문의 보편적 특성, 이른바 ‘번역 보편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번역 보편소로 지금까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번역문의 특성은 단순화(simplification)와 명시화(explicitation) 및 규범화(=표준화, normalization) 등이다.

단순화는 ST의 형식과 내용이 TT에서 간소화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단순화는 어휘, 형태, 통사, 문체 등 언어 형식의 전체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3) 이때의 번역 자료란 번역문 자료와 비번역문 자료의 총체, 곧 비교코퍼스(cf. 김혜영 2009)를 가리킨다. 한편, 본고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개별 번역 자료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형식의 단순화는 내용(=메시지)의 단순화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예컨대 어휘에 단순화의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번역문의 어휘는 사용된 항목의 수효가 적고, 문법기능어가 내용어보다 많고, 실제로 사용된 단어(=실현, token) 대 사전에 등재된 단어(=유형, type)의 비율이 낮고, 고빈도 어휘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ST에 비해, TT의 어휘가 다양성에서 현저하게 열세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밖에 상위어 사용하기(chunking up), 일반적인 유사 동의어 사용하기(chunking sideways), 수식어 삭제하기 등도 모두 단순화 경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명시화는 ST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TT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ST에 없거나 혹은 ST의 문맥에 감춰진 의미를 TT의 표면에 덧붙여서 드러내는 표현 양상을 가리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번역문 독자들의 독해 가능성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명시화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독자들의 이해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명시화는 구체적으로 접속사의 첨가, 대명사 중의성의 해소, 설명 혹은 정보의 첨가, 문법 장치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ST 독자들에게 익숙하지만 TT 독자들에게 낯선 고유명사에 대한 보충적 정보의 제공도 물론 명시화의 일종이다.

규범화는 ST 특유의 텍스트 특징을 TT의 언어와 문화 규범에 맞추어 재생산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는 어휘, 통사 구조, 텍스트 구성 방식, 문체, 구두점 등 언어와 문화의 전체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번역자의 심리적 동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규범화도 명시화와 마찬가지로 번역문 독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번역자 나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번역 보편소는 외견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진실로 서로 다른 실체인지, 아니면 동일한 실체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들 세 가지 번역 보편소가 ST와 TT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들 번역 보편소가 번역 과정의 심층에서 하나의 거대 원리로 통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명시화는 일반적으로 형태의 첨가나 설명적 정보의 증가 등 각종 잉여적 징표(redundancy)의 출현을 연상시키지만, TT 독자들에게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복잡한 요소를 삭제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이러한 단순화 전략도 역시 명시화의 범

주에 넣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드물게 사용되는 언어 관계(連語-, collocation)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언어 관계를 선호한다거나 은유의 수사보다 직유의 수사를 선호하는 중립화(neutralization)⁴⁾ 및 번역 텍스트들이 비번역 텍스트들에 비해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 합치(convergence)⁵⁾의 경향 등이 번역 보편소로 지적되기도 한다.

2.2. 명시화의 유형

앞서 언급한 대로 명시화의 사전적 정의는, ST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TT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ST에 없거나 ST의 문맥에 감춰진(implicit) 의미를 TT의 표면에 드러내는(explicit) 표현 전략을 가리킨다. 명시화의 발현 양상은 다양한데, SL에 능통한 독자라면 ST의 문맥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암시적 정보를 TT에 표현하는 의미의 확대 내지 풀어쓰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접속 관계를 표현하는 SL과 TL의 차이 때문에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어를 TT에 첨가하는 문법 요소 첨가 형태 등도 있을 수 있다. 번역자가 선택하는 명시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김순영 2005: 145-146; 안동환 옮김 2008 77).

(a) 의무적(obligatory) 명시화: SL과 TL의 언어 구조 차이에서 비롯되는 명시화로 통사 범주와 의미 범주 모두에 걸쳐 나타나며, TL의 문법성에 지배되므로 의무적이다.

(b) 선택적(optional) 명시화: SL과 TL에서 나타나는 문체 선호도와 텍스트 구성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명시화로 TL의 문법성에 직접 지배되지 않으므로 선택적이다.

(c) 화용적(pragmatic) 명시화: SL 공동체와 TL 공동체의 문화적 배경에 대

4) 안동환 역(2008: 93)에서는 텍스트의 가독성 증대라는 공통의 효과를 기초로 명시화를 중립화와 연관지으려는 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로, 명시화가 번역자의 심리적 태도에 대한 것이라면, 중립화는 그러한 심리적 태도가 실제로 텍스트의 표현에 구현된 양상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김혜영(2008: 29)에서는 ‘수렴화’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지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명시화로 지명이나 인명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여기에 속한다.

(d) 번역 내적(translation-inherent) 명시화: 번역 과정상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명시화로 SL이나 TL과 무관하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명시화는 네 번째 번역 내적 명시화이다. 번역 내적 명시화는 비번역문과 구분되는 번역문의 존재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따라서 번역 내적 명시화의 존재가 번역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이는 ST나 TT 등의 자연언어와 구별되는 ‘번역 언어’ 혹은 ‘제3의 기호 체계(the third code)’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 약사(略史) 개관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학 연구의 서장은 영-한 대조 문법과 텍스트 언어학의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졌다.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수집한 구어 자료 코퍼스를 활용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각종 문법 범주에 대한 대조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 차이로 어순의 차이와 명사(주체, 사물) 지향성 대 동사(행동, 사건) 지향성의 차이라는 상위 구조의 차이로 파악하고, 양쪽 언어에 존재하는 각종 문법 범주의 세부적인 차이가 대체로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곽성희(2000, 2001, 2002a, 2002b, 2004)는 텍스트 언어학과 코퍼스 언어학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분석한 다음, 양 언어 사이의 번역 전환에서 일어나는 제반 양상을 계량화해서 제시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일정한 의도에 입각하여 설계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곽성희(2000, 2001, 2002a, 2002b, 2004)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는 텍스트 언어학과 연계된 본격적인 기술번역학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호정(2003)은 코퍼스 언어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개괄과 함께, 이를 번역학 연구와 번역 교육에 접목할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로서, 그 성과를 A-B 번역 교육에 적용하면 번역투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영(2005)는 학생과 전문 번역사의 영-한 번역 자료에서 추출한 소규모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명시화 가설을 논의한 연구로서, 주로 의무적 명시화와 화용적 명시화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적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가 화용적 명시화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최정아(2003)은 코퍼스 언어학에 근거한 통계 분석의 방법론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어 수요의 증감 현상을 논의한 연구로서, 문법 구조의 차이와 번역자의 태도(전략) 여하에 따라 단어 수요의 증감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한 황세정(2004)도 영-한 번역에 나타난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을 분석하면서 담화의 영역과 방법, 경향에 따라 번역의 방향 설정과 문체 및 정보량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번역 보편소에 관한 논의도 더러 눈에 띄이는데, 김순영(2003), 원영희(2004)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외국의 연구 사례와 비견되는 연구 성과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김혜영(2009)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텍스트를 비번역 텍스트와 비교하여 그 언어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번역 글쓰기의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번역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00만 어절의 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균형 코퍼스와 역시 100만 어절의 비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균형 코퍼스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형태별 빈도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어휘, 구문, 담화화용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번역 보편소와 한국어 번역문의 개별 특징을 추출한 연구의 전반부이다. 여기서 밝혀진 한국어 번역문의 보편소는 ‘단순화’와 ‘수렴화’인데, 전자는 정보성과 어휘 다양성이 낮고 문장 길이가 짧다는 점이고, 후자는 번역 텍스트들이 서로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어 번역문만의 개별 특징으로 여기서 언급된 것은 일반 명사의 상대 빈도가 낮다든가, 존칭 2인칭 대명사인 ‘당신, 그대, 여러분’의 쓰임이 많다든가, 동사의 상대 빈도가 낮고 보조용언의 상대 빈도가 높다든가, 병렬 접속과 선택 접속의 쓰임이 적고 대조 접속의 쓰임이 많다든가, 화계(話階)의 중립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필자 자신의 지적처럼 (ibid. 263), 이 연구가 일부 텍스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코퍼스를 대상으로 형태별 빈도를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의 언어적 특징과 문제

점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은 분명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⁶⁾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모두 한국어 번역문에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특징(positive traits)을 논의의 주제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징의 부재를 논의의 주제로 삼은 연구는 전무하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한국어 보어 구문기의 부재 내지 분포의 열세를 구조적 명시화의 결과로 보고, 실제 영-한 번역 자료의 조사를 통해 이 가설의 진위 여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3. 한국어 번역문의 열세적 분포와 우세적 분포

3.1. 보어 구문의 출현 양상

대규모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성을 분석한 김혜영(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 번역문의 형태·통사적 사실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보격 조사로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으)로’의 용법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놓인 ‘-이/가’를 보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번역문에는 비번역문에 비해 부사격 조사 ‘-(으)로’가 보격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혜영 2009: 75-76). 다음 예문을 보자.⁸⁾

- (1.a) 자신은 뼈에서부터 피까지 모두 군인의 몸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
- (1.b) 마흔 셋의 가정주부로 돼버린 낸시는 육조에 누워 ~
- (1.c)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면서 내가 아예 그 일까지 직접 ~
- (1.d) 오늘날 역사적 치장물로 되어 버린 ‘국가’ ~

-
- 6) 앞서 각주 3)에서 밝혔듯이 본고의 논의도 김혜영(2009)의 제3장을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김혜영(2009)가 현재까지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성을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혜영(2009)가 번역학 연구에서 의의가 적지 않은 만큼 여기에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분석의 엄밀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학교 문법에서 보어로 인정하는 경우는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에 한정된다. 그 중에서도 ‘되다’와 관련된 보어 구문이 본고의 관심 대상이다.
 - 8) 이 예문은 김혜영(2009: 75-76)에서 가져왔다.

위의 예문들의 밑줄 그은 어구는 김혜영(2009: 75-76)의 지적대로 서술어 ‘되다’ 앞에서 그 보(충)어 역할을 하며, 여기에 나타난 부사격 조사 ‘-(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격 조사 ‘-이/가’로 치환이 가능하다.

- (2.a) 자신은 뼈에서부터 피까지 모두 군인의 몸이 되어 있었던 반면 ~
- (2.b) 마흔 셋의 가정주부가 돼버린 낸시는 욕조에 누워 ~
- (2.c)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가 아예 그 일까지 직접 ~
- (2.d) 오늘날 역사적 치장물이 되어 버린 ‘국가’ ~

결과적으로 (2.a)~(2.d)처럼 수정되기 이전의 번역문에는 서술어 ‘되다’ 앞에 보어가 거의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번역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혜영(2009: 76)에서는 “보격 조사 자리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상태나 위치, 지위 등에 이르다’는 뜻의 ‘become, get, be, go’나 ‘변화하여 -이 되다’는 뜻의 ‘turn into, change into’ 등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결과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사격 조사 ‘-(으)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결과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라는 대목이다. 이는 번역자의 심리적 태도를 지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양상이 일종의 명시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격 조사의 변환이라는 구조적 장치를 통해 명시화가 실현되었으므로 위 (1)의 예문에 나타난 부사격 조사의 존재는 일종의 구조적 명시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번역문의 특정 형태를 원문의 해당 어구와 관련시켜 그 출현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번역학의 관심사인 번역 과정의 해명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다. 다시 위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 대체로 ‘ST의 A를 TT의 B로 번역하기 때문에 TT에 B가 존재한다’라는 논리 형식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상에 대한 기술이지, 현상의 배후에 도사린 근본 이유 내지 원인에 대한 해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영어 원문에서 ‘become, get, be, go’나 ‘turn into, change into’ 등과 관련된 어구를 왜 한국어에서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와 관련시켜 번역하는가를 천착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3.2. 보어 구문과 이중주어 구문

우리는 여기서 한국어에서 보어를 가진 위의 구문과 형태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포상으로 번역문에서 유사한 출현 양상을 보이는 이중주어 구문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번역문에서 이중주어 구문이 비교적 드물게 출현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중주어⁹⁾ 구문을 검토해 보자.

- (3.a) 철수가 머리가 좋다.
- (3.b) 철수는 머리가 좋다.
- (3.c) 나는 음악이 좋다.
- (3.d) 철수는 인정이 많다.
- (3.e) 그 집은 차가 세 대가 있다.

이들 문장은 한국어 문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독특한 존재이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아오지 못하다가 생성 문법이 도입된 이후로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¹⁰⁾ 우리가 이들 문장 유형을 일반 언어학 이론에 비추어서 ‘독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단문(*simple sentence*)에 주어처럼 보이는 성분이 둘 이상 출현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¹¹⁾ 단문이란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일회적인 문장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제기되었던바, 제안된

9) 일반적으로 이중주어 구문으로 불리지만, 주격 조사가 3회 이상 출현하는 문장도 있어서 다중주어 구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중주어 구문으로 부르기로 한다.

10) 위의 자료 (3)을 보면, 주격조사 ‘-이/-가’만 보이는 유형과 ‘-은/-는’이 보이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은/-는’을 주제 표시 보조사로 보는 관점에 서면 (3.b), (3.c), (3.d), (3.e) 등은 이중주어 구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 구문을 이중주어 구문에서 배제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한편 초기 변형문법학자들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문법 연구』 1권~4권을 참고할 수 있다.

11) 여기서 말하는 일반 언어학 이론이란 형식 문법의 틀을 가리킨다. 예컨대 주제가 포함된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같은 문형을 ‘주제’(topic/ theme) - ‘평언’(rheme/ comment) 구조로 분석하는 기능 문법의 분석 방법은 논외로 한다.

가설 역시 이와 같은 파격적 구성을 극복하는 기본 입장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주어진 문장이 단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주어(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문장이 단문이 아니어서 주어(가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각각의 기본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설명 방식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장을 대표하는 가설은 심층구조를 상정하는 방안이다. 즉, 표층구조만으로 보면 이들 문장에 주어(가 둘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층구조에서는 하나만이 주어이고 나머지는 다른 격이 배당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3.a)에서 ‘철수가’라는 어구에 보이는 주격조사는 심층구조에서 소유격을 취한 ‘철수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표층구조로 올라오면서 소유격이 주격으로 바뀌는 변형을 거쳐 생성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심층구조에서는 ‘철수의 머리가 좋다.’가 되어 더 이상 파격적인 구성이 아닌 일반적인 구성이 된다.

둘째 입장을 대표하는 가설은 서술절을 설정하여 이들 문장을 단문이 아닌 복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¹²⁾ 이에 따르면 예컨대 (3.a)에서 ‘머리가 좋다’의 ‘머리가’가 서술절의 주어(소주어)라는 것이며, 그 앞의 ‘철수가’는 그 서술절을 다시 서술어로 하는 주어(대주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3.a)와 같은 문장은 특이한 문장이 되지 못한다. 소주어 ‘머리가’는 서술절이라는 내포문의 주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가지 설명 방식 가운데서 어떤 쪽을 따르든 표면적으로 하나의 문장에 주격 성분이 둘 이상 실현된다는 사실은 한국어 문장 구조의 특징으로 지적해도 무방할 것이다.¹³⁾

다시 본고의 논의로 돌아와 보면, 위의 두 가지 설명 방식 가운데서 보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변환 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심층구조에서 다른 격을 상정하여 이중주어 구문의 파격을 해소한 첫 번째 입장이다.

12)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설명 방식이다.

13) 현재의 필자는 심층에서 다른 격을 설정하는 첫째 기술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후자의 논리를 받아들여려면 관형절이나 명사절 등 여타의 절과 다른 문법 행동을 보이는 특이한 서술절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설명 방식을 여기에 적용하면, 예컨대 ‘물이 얼음이 된다.’는 문장은 표층구조에 실현된 문장이고 심층구조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된다.’라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사격조사를 사용한 위 (1.a)~(1.d)의 번역은 TL의 표현 단계에서 심층구조에 가까운 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통사적 피·사동 구문의 우세적 분포

우리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위 보어 구문의 분포와 반대되는 경우, 즉 특정 구문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문법 범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피동과 사동 형성에서 통사적 구성 방식이 비번역문에 비해 우세하다는 사실(김혜영 2009: 108-111)이다. 즉, 피동법에서는 ‘-게 되다’와 ‘-어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 구성이 번역문에서 비번역문보다 우세하고, 사동법에서도 ‘-게 만들다’,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 구성이 역시 번역문에서 우세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의 피동 구성에는 접미사 ‘-이, 히, 리, 기’의 첨가에 의한 어휘적 피동과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이 있고, 사동 구성에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첨가에 의한 어휘적 사동과 ‘-게 만들다’,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이 있다. 피동과 사동 모두 어휘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 사이에는 통사의미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¹⁴⁾, 기본적으로 양자가 각각 피동법과 사동법의 범주에 속하고 어휘적 구성이 통사적 구성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ST의 문법 범주가 TT로 전이될 때, 피동과 사동이라는 문법 범주가 구조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통사적 구성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¹⁵⁾을 알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구조적 명시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특정 구문의 부재와 편재(遍在) 양상을 확인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정반대의 분포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적 명시화의 서로 다른 실현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 제

14)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임홍빈 외(2001: 311-13, 330-34)를 참고할 수 있다.

15) 어휘적 피동과 사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사적 구성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명시화에 의해 생성된 번역문은 번역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장에서는 영-한 번역 자료¹⁶⁾를 대상으로 ‘되다’ 앞에서 보격(주격¹⁷⁾) 조사를 취하는 보어 구문의 출현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서 제기한 구조적 명시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보격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영 2009: 75-76)는 진술을 실제 번역 자료에서 확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

위 제3장의 말미(각주 16)에서 언급한 번역 자료를 대상으로 ‘되다’ 앞에서 보격(주격) 조사 ‘-이/가’를 취하는 보어 구문을 모두 검색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¹⁸⁾

(4) ‘-이/가’ + ‘되다’ 구문

a-K. 이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 (1-1: 43)

a-E. He was already laughed at for ... (I: 24)

b-K. 그 초록 불빛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1-1: 51)

16) 여기서 활용하는 영-한 번역 자료는 잘 알려진 해리포터 시리즈의 제1권(1, 2)에서 뽑았다. 원서와 번역서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1권 I, II, 김혜원 옮김, 1999, 서울: 문학수첩.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J. K. Rowling, 1998, New York: Scholastic Inc.

한편 본고에서 해리 포터 시리즈의 일부를 검토 대상 자료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므로 번역자 개인의 문체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17) 한국어 문법의 틀에서 볼 때 해당 성분이 보어이므로 보격 조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형태상 주격 조사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18) 원문과 번역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일종의 병렬코퍼스인데, 조사한 전체 자료의 분량에 비해 실제로 수집된 용례가 많지 않아서 코퍼스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다.

b-E. though he couldn't imagine where all the green light came from. (I: 29)

c-K. 두들리가 대장이 된 것은 그가 그들 중 몸집이 가장 크고 제일 멍청했기 때문이다. (1-1: 53)

c-E. as Dudley was the biggest and stupidest of the lot, he was the leader. (I: 31)

d-K. 헤그리드의 조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1: 213)

d-E. Perhaps he could be Hagrid's assistant. (I: 150)

e-K. 하지만 그 순간부터 헤르미온느 그레이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1-2: 32)

e-E. But from that moment on, Hermione Granger became their friend. (I: 179)

f-K. 자, 멋지고 공정한 경기가 되길 바라요. (1-2: 40)

f-E. Now, I want a nice fair game. (I: 185)

g-K. 어쩌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몰랐다. (1-2: 53)

g-E. this would probably be the best Christmas he'd ever had. (I: 195)

h-K. 도움이 됐니? (1-2: 79)

h-E. Does that help? (I: 213)

i-K.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1-2: 122)

i-E. What good'll that do? (I: 244)

j-K. 그보다 더 어리벙벙하고 충격받은 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2: 205)

j-E. (who) couldn't have looked more stunned and horrified ... (I: 306)

(5) ‘-(으)로’ + ‘되다’ 구문

a-K. 그럼,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게 말이나? (1-1: 41)

a-E. And come back and find the house in ruins? (I: 23)

위 (4)와 (5)에서 보듯이, 서술어 ‘되다’ 앞에 오는 어구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대체로 보격(주격과 동일한 형태)으로 실현되고, 오직 한 용례만 부사격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보격과 부사격의 상호 교체가 가능한 용례를 보면, (4)에서는 보격을 부사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오직 (j-K)뿐이다.¹⁹⁾ (5)의 용례는 물론 부사격을 보격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과 보격의 상호 교체가 가능한 용례와 불가능한 용례를 검토해 보면, 서술어 ‘되다’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이 눈에 띄인다. 잠시 ‘되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자.

(6) ‘되다’

-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 「2」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 「3」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 「4」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
- 「5」 어떤 대상의 수량, 요금 따위가 얼마이거나 장소가 어디이다.
- 「6」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다.

위 (6)에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보격과 부사격의 상호 교체가 가능한 부류는 서술어 ‘되다’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위 2번)에 해당하고, 보격(주격)과 부사격의 상호 교체가 불가능한 부류는 그 나머지의 다양한 의미(1번, 3번, 4번)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술어 ‘되다’ 앞에서 일어나는 부사격과 보격의 교체는 그 분포를 ‘되다’ 전체로 일반화하기보다 ‘되다’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해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19) 예문 (4)의 (a-K)는 ‘이미 웃음거리로 되고 있는’처럼 부사격 조사의 교체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심사자 지적) 이 문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화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아래 (j-K)에 비해 ‘과정’의 의미가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자는 서술어 ‘되다’를 ‘변하다’로 교체하기 어려운 반면, 후자는 서술어 ‘되다’가 자연스럽게 ‘변하다’로 교체된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보격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영 2009: 75-76)는 진술은 “번역문에서는 서술어 ‘되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 부사격 조사가 보격(주격)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로 수정되어 진술되어야 한다.

5. 이론적 함의

앞서 제4장에서 얻은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시사한다. 그것은 크게 연구방법론에 관한 것과 이론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5.1. 코퍼스 분석 방법의 보완

우선 방법론상으로 중요한 것은 대규모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소기의 결론을 도출하는 코퍼스기반 언어학 혹은 코퍼스기반 번역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의 문제이다. 정량적 통계 분석은 조사 대상이 되는 언어 자료의 방향성이나 흐름을 알아보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 반면에 개개 자료의 특이성은 사상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최소한의 정성적 자료 분석에 의한 보완 작업이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2. 번역의 방향성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번역 언어가 일상 언어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제4장의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이 보어 구문에 관한 한)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격이 부사격으로 교체된 (5)의 용례를 중시한다면, 번역이 무표(unmarked)의 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한국어에서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를 거느리는

보어 구문은 주격과 형태상 동일한 표지가 되는 기능중복의 부담을 안고 실현되는 유표적 구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이 얼음으로 된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지금도 연변 등지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번역 언어 TT가 일상 언어와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을 번역 표현의 목표로 삼는다면, 예컨대 예문 (5)와 같은 경우에 번역 이후의 수정 과정, 즉 번역 언어 혹은 중간 언어를 일상 언어와 최대한 가깝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코퍼스 언어학 혹은 코퍼스 번역학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코퍼스 자체가 실제로 사용되어 존재가 입증된 자료라는 점이다. 코퍼스 언어학의 부상은 이상적인 화자(ideal speaker)가 산출한 가공의 발화체보다 자연 상태의 실제 화자(natural speaker)가 산출한 실제 발화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언어의 본질 규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언어 연구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보어 구문의 분포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코퍼스 분석의 결과를 수용할 때 그 환경과 조건을 보다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 자료의 분석이 갖는 장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연구자는 그 한계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자료의 처리에 근거한 통계 수치가 언어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 전환-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한국번역학회. 93-118.
- _____. 2001,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한국번역학회. 77-97.
- _____. 2002a, 「영한 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 양상」, 『번역학연구』, 3:1, 한국번역학회. 125-44.
- _____. 2002b, 「Intertextual Media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번역학연구』, 3:2, 한국번역학회. 163-88.
- _____. 2004,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ve Devices in English Source, Korean Target and Comparable Korean Texts」, 『번역학연구』, 5:2, 한국번역학회. 163-84.
- _____. 2006, 『번역 입문』, 서울: (주) 이지북스.
- 김순영. 2003,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the”의 의미 보충(enrichment) 현상」, 『번역학연구』, 4:2, 한국번역학회. 155-73.
- _____. 2005, 「Evidence of Explication in Text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A Corpus-based Pilot Study」, 『번역학연구』, 6:1, 한국번역학회. 143-66.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한국번역학회. 29-57.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배스넷. 1993, 『번역학 개론』 *Translation Studies*(엄재호 옮김), 서울: 인간사랑.
- 사라 라비오사. 2008, 『코퍼스기반 번역학』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안동환 옮김), 서울: 동인.
- 원영희. 2004.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담화상 잉여성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113-32.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한국번역학회. 47-76.

- _____.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한국번역학회. 53-76.
- _____. 2002,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1, 한국번역학회. 59-82.
- _____. 2003, 「한영 간 장소이동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4:1, 한국번역학회. 51-71.
- _____. 2004, 「영어 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145-66.
- _____. 2006, 「비유 구문의 번역: 언어행위의 비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한국번역학회. 151-78.
- 임흥빈 외. 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정연일. 2006, 『통·번역사의 한국어』, 서울: 이지북스.
- 정호정. 2003,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 『번역학연구』, 4:2, 한국번역학회. 71-88.
- _____. 2007,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최정아. 2003,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 연구」, 『번역학연구』, 4:2, 한국번역학회. 89-116.
- 황세정. 2004, 「번역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 연구」,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183-203.
- Baker M.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M. Baker. eds.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233-50.
- _____, Francis, G. and Tognini-Bonelli, E. 1993. *Text and Technology, Honor of John Sinclair*.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Holmes, J. 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Unpublished manuscript, Amsterdam, Reprinted in Holmes, J. S. 1988,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Jac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Nida, E. A. &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Song, Yo-In.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

**The Structural Explicitation in Korean Translated Text
— In Relation to the Restricted Distribution
of a Complement Construction —**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ascertaining the distribution of complement construction in Korean translated text, as a manifestation of structural explicitation.

We have used as the starting point, H. Y. Kim(2009: 75-76)'s statement of "It occurs more frequently in the translated text than in non-translated text that the adverbial particle takes place of the complement or subject particle."

As the result of the present survey on the related example sentences in English into Korean translated text, the above statement should be changed in the revised version as follows: "It often occurs that the adverbial particle takes place of the complement or subject particle only when the predicate *doe-da* has a specific meaning of 'turning or changing into something different' in English into Korean translated text.

In addition, the present research leads to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hat the result from the statistical proces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dividual data analysis even though not in a large scale.

Second, seen from the present research at least, there is not much distance between the translated language and the non-translated language.

Third, if we regard the effort to make target language closest to everyday language as an ideal purpose of translation. the revision stage after translation in order to rewrite the translated text towards the natural text based on everyday languag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 Key Words: translated sentence, non-translated sentence, explicitation, structural explicitation, complement construction in Korean, passive/ causative construction in Korean,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9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